

생활말씀 7월

2020년 7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태 12, 50)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일화에 대해 전합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카파르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일화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이곳 카파르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와 계시면서, 모든 이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아마도 먼 길을 걸어오셨을 것이고,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시지는 않고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자녀’, 곧 그분 약속의 상속자로 간주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이들은 서로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사람들이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엄숙한 손짓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곧, 누구든지 단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 가족에 속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느껴도 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그 어떤 문화에 속해 있든, 그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하느님의 모상模像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 사람은 하느님의 ‘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분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 가족으로, 즉 그분의 형제요 누이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놀랍고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로써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의 두려움과 고정 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한계들과 나약한 모습들 역시, 우리가 참된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참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느 모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주님 탄생 예고의 순간부터 골고타 언덕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내어

드렸듯이, 또한 그 후 교회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다시 태어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서로 간의 애덕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낳아 드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끼아라 루빅은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초대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영신적 시련이나 윤리에 관계된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말로써나 행동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들이 따스한 가족애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 주변에 따스한 가족애의 온기가 점점 더 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 그 어떤 부류의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형제들과 이루는 가족 정신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상理想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 가족 정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족 정신은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히 이룩해 가야 합니다. 가족 정신은 겸손한 정신이고, 다른 사람들의 선익善益을 원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족 정신은 [...] 참된 애덕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크나큰 인류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시는 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홈스 Homs 라는 도시의 한 구역에는 150 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방과 후 학교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대부분은 이슬람 신자들인데, 방과 후 학교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 건물에서 열립니다. 이 방과 후 학교의 산드라 Sandra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대화에 바탕을 두고, 좋은 가치관들을 키워 나가하고자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교사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어린이들을 맞아들이고 돕습니다. 이곳의 많은 어린이들은 트라우마와 고통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 해체되다시피 했지만, 이곳에서는 가정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레티치아 마그리
포콜라레운동 총본부 「생활말씀」 편집위원

* 끼아라 루빅, 『젠스 Gen's』, 30(2000/2), 42 쪽.

젠스는 일치의 영성을 생활하고자 하는 신학생들을 가리키며, 이들을 위한 잡지의 이름이기도 하다. -옮긴이

Focolare contacts in Japan E-mail: tokyofocfem@gmail.com

HP: www.focolare.org/japan

東京 : 03-3330-5619/03-5370-6424

長崎 : 095-849-3812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도서출판벽난로 인터넷서점 <http://www.focobooks.com>

서울 본부 : 여 (04607) 서울 중구 다산로 21 길 27-9(신당동)/전화 02-2232-2460

서울 본부 : 남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9(서교동)/전화 02-332-1010

